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창간 300호 기념호

2024. 5. 26 ~ 2024. 6. 15 제300호

소비자의 LGBT 거부감... 기업체, 영업 전략 대폭 수정

소비자들의 엘지비티(LGBT)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트랜스젠더 등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제품을 출시하던 기업들의 판매 포기 등 영업 전략을 뒤바꿔 놓고 있다.

미국 워싱턴스탠드에 따르면, 미국 대형유통체인 타겟(Target)이 지난해 트랜스젠더 아동용 상품을 시판한 이후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아, 올해는 아동용 트랜스젠더 용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타겟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취급이 '자사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주식 시장 침체 이후 방침을 변경, 올해는 LGBT 상품을 대거 감소시키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타겟은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부터 LGBT 상품이 제한적일뿐 아니라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는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된 성

인 의류와 가정용품 및 식음료 품목을 포함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제품들은 과거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온라인과 일부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타겟은 지난 여름 체스트바인더(가슴을 압박해 평평하게 보이게 하는 의류)와 터킹 수영복(남성 생식기를 숨겨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의류) 등 아동용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1, 2분기 실적이 급감하자 타겟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코넬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탐색하면서 배운 것을 적용해 우리 고객들이 타겟에 기대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예고했다.

이에 워싱턴스탠드는 "코넬이 배운 것은 트랜스 행동주의가 재정 파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이라며 "오랫동안 급진적인 아젠다를 소비자들에게 강요

했던 대기업 CEO들이 이제는 수익성에 타격을 받으면서 극좌파를 달래는 것이 가치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최대 맥주 회사인 앤하이저부시, 나이키, 디즈니, 플래닛 피트니스, 립컬, 도리토스와 마찬가지로 코넬은 고객들을 출입구에서 밀어냈다."고 덧붙였다.

앤하이저부시는 자사 맥주 브랜드인 버드라이트 광고에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했다. 나이키도 트랜스젠더를 모델로 썼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탈의실 출입을 허용했고, 호주의 속옷 브랜드인 립컬은 수염을 기른 트랜스젠더를 여성 속옷 광고 모델로 사용했다.

미국 프리토레이가 생산하고 있는 스낵 도리토스는 LGBT 성 정체성 단체 '잇겟츠베터(It Gets Better)와 함께 한정판 무지갯빛 과자를 출시하기도 했다.

[GPNEWS]



"복음기도신문 300호, 미라클 300을 축하합니다"

주님 은혜로 복음기도신문이 창간된 지 올해로 14년, 신문 발행호수로는 300회를 맞았다. 돌아보면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오늘에 이르렀다. 특별기념

호의 사람풍경은 복음기도신문과 같은 매체의 필요성을 기도하며 미디어 사역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분을 만나기로 했다.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순회

선교단을 설립하고 한국과 열방에서 복음을 외쳐온 김용의 선교사를 만났다.

• 8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3)

죄를 가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하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나뭇잎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벌거벗었다.' 곧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와는 마음을 본다."(사무엘상 16:7, AEB)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겉모습을 가리려 했지만, 죄로 가득 찬 속마음을 가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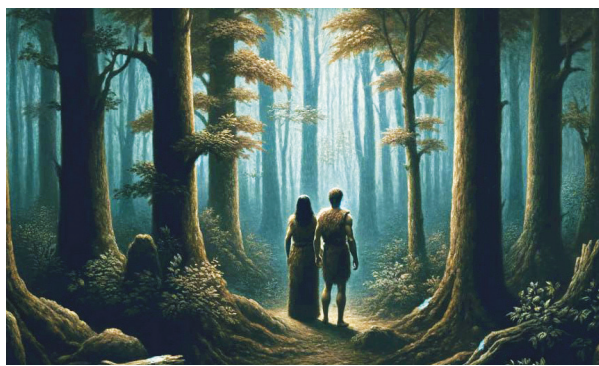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므로 그들의 나뭇잎 옷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죄를 덮어 가리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21, KJV)

이것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영적 법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교육이었다. 이 세상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짐승이 피를 땅에 쏟으며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가 그 눈에서 광채가 사라진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확연히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참혹한 현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가리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의



일러스트=시 제작. DALL-E.

열매를 먹는다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창세기 3장 22~24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끝까지 살지 않도록 그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또 다른 자비였다.

만일 사람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죄인들이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죽을 너머의 일도 이미 생각하셨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문의

010-6326-4641

튀르키예, 비잔틴 초라 교회 모스크로 개조... 이슬람 정당 달래기 “논란”



▲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비잔틴 초라 교회. 출처: en.wikipedia.org 캡처

튀르키예 당국이 비잔틴 초라(Byzantine Chora) 교회를 모스크로 개조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서널크리스천컨선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4년간의 보수 공사 끝에 이스탄불 중심부에 있는 고대 비잔틴 초라 교회를 모스크로 개조했다. 튀르키예는 앞서 2020년에도 아야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축했다.

아름다운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유명한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초라 교회는 오랫동안 문화적, 역사적 보물로 소중히 여겨져 왔다.

이 건물을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문화유산과 종교적 관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보존론자들과 소수 종교 단체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카리에 모스크로 알려진 이 건물은 5월 6일 무슬림 예배를 위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비평가들은 이번 모스크로의 변경을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

(AKP)을 지지하는 중요한 투표층을 구성하는 이슬람 정당을 달래기 위한 계산된 정치적 책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유적지의 위상 변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잔틴과 그리스 유산을 지닌 일부 기념물의 용도가 변경된 튀르키예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iopoulou) 그리스 대통령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 예술과 문화의 풍부한 유산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화적 불안정과 종교적 편협함”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비난했다. 이 유적지들의 종교적 개조는 튀르키예와 기독교 과거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역학 관계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튀르키예는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리스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였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주로 무슬림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튀르키예의 공식적인 세속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부 기독교 기념물이 모스크로 전환

됐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中, 국가보안 관련 불시 휴대폰·노트북 검사

중국 국가안전부(국안부)가 국가보안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불시에 휴대폰·노트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최근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규정은 긴급하게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출이나 형사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자유를 억압하고 공공감을 조성하려는 중국 정부를 책망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중국 교회를 주의 권능의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십시오.

美 일리노이주 학교,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비밀’ 권장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기숙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의 사회적 성 전환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비밀로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성별 지원 절차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가 공개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교육을 지키는 학부모들은 보고서에서 “이 계획은 일리노이 수학 및 과학 아카데미가 재학 중 사회적 전환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에는 화장실 이용, 학생이 선택한 이름 및 대명사 확인, 학생이 요청한 성 정체성 비밀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린 교직원과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웠던 생명이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미국의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복음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대전서도 퀴어행사 열릴 듯... 교계 반대 집회 나서

대전에서도 퀴어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독교계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엘지비티(LGBT) 지지자들이 함께 퀴어행사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조직위)를 출범하고 14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행사 추진과 더불어 대전의 LGBT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독교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퀴어행사 반대 집회를 열고 “공공장소에서 선정적인 동성애·퀴어 활동이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퀴어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퀴어행사는 문화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고 죄를 조장하며, 다음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해를 가하는 문제입니다. 악한 원수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퀴어행사가 열리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GPNEWS]

말라위, 엘니노 인한 가뭄 극심... 900만 명 기아 위기

아프리카 말라위의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엘니노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말라위의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한 유엔 엘니노·라니냐 대응 기후 위기 코디네이터인 리나 겔라니,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지역 책임자인 멩게스 탐 하일레 박사과 패트리스 탈라 박사는 정부와 국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엘니노로 인한 가뭄으로 이번 시즌 옥수수 수확량이 5년 평균 대비 45% 감소하고 식량 불안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연말까지 인구의 약 40%가 극심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약 1만 4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3월 25일 말라위 대통령은 국가 재난을 선포했다. 4월에 발표된 국가 대응 계획에 따르면 4억 49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웃 국가인 잠비아와 짐바브웨도 국가가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미 식량 재고가 고갈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며 옥수수 가격이 작년보다 40%나 오른 상황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미 영양실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엘니노 현상으로 열대성 사이클론 프레디가 발생해 2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주요 인프라가 손상됐다. 2022년에는 말라위에서 사상 최악의 콜레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말라위 정부는 5만 4000헥타르의 토지에 농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마

련했지만, 필요한 자금의 40%만 확보된 상태여서,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운영하는 중앙 긴급구호기금(CERF)은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최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엘니노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35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GPNEWS]



▲ 가뭄으로 바짝 마른 말라위 남부 옥수수밭. 출처: 유튜브 채널 DW News 캡처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24·365

ON AIR 우리의 기도로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오늘의 기도방송

6월 3일~28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시간 6월 3일 ~ 28일(매주 월~금) 시간 아침 6시~7시 “생방송”

방법 YouTube “기도24365” 채널 구독

문의 010-387-24365

3차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52 Prayer

2024. 7월 1일 ~ 8월 29일

-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기간** 2024년 7월 1일 ~ 8월 29일 중 하루를 정합니다. (단, 주일은 제외)
-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010-9440-4365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기도24·365 홈페이지(prayer24365.org)에서 확인하세요.



미국의 친동성애 확산... 이미지 개선전략과 법조인들의 지지 때문

미국에서 친동성애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친동성애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 개선 전략과 법조인들의 우호적 판결 덕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동성애자인 로사리아 버터필드(Rosaria Butterfield)는 미국 기독교 언론 월드(World)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친동성애에 세력의 전략과 자신의 회심 과정을 자세히 나누며 성도들에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버터필드는 오늘날 미국 Z세대(18~25세)의 30%가 자신을 엘지비티(LGBT) 성 정체성 보유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4년 조사 때 나타난 3.4% 대비 약 27%나 늘어난 숫자다. 그녀는 이런 흐름을 지적하면서 친동성애 세력의 이미지 개선 전략과 미국 대법원의 친동성애적 판결들을 함께 소개했다.

첫째, 동성애자의 피해자 흉내내기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자에게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반동성애 목회자를 나치와 결부시키는 등 미국 내 성소수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 활동가인 신경심리학자 마셜 커크(Marshall Kirk)와 광고기획자 헌터 매드슨(Hunter

Madsen)은 게이들의 이미지를 정상화하는 전략을 고안했다. 미국인들이 동성애자에 우호적 시각을 갖게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1989년 출간된 '파티가 끝난 후(After the Ball)'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이 게이들을 피해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그들은 무엇보다 게이 반대자를 악인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게이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히스테리컬 인물'로 만들어 이들을 독일 나치와 결부시키고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다윈주의, 자유주의 목회자들을 '열린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들은 게이들이 교회를 조종하고 교인들이 게이를 피해자로 만개해 친동성애 시각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차별에 저항할 뿐 게이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인들을 안심시켜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게 했다.

40세가 넘어 독신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게이의 선조로 내세우고 이들의 삶에 대해 멋진 이야기를 고안하라는 조언도 내놓지 않았다.

버터필드는 이러한 전략이 진행되면서 당시 동성애 행진과 동성애자 집단결혼식이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친동성애 법조인들의 동성애 지지 판결

미국 내 친동성애 흐름 확대에는 대법원의 동성애 관련 판결들도 한몫을 담당했다. 2015년 미국 대법원은 게이 인권을 대폭 향상시킨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Obergefell v. Hodges)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5년 후인 2020년에는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판결(Bostock v. Clayton County)을 통해 고용주가 게이나 트랜스젠더를 해고하면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써 LGBT 성 정체성 보유자 해고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버터필드는 자신이 동성애자였지만 기적으로 개종한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소개했다.

동성애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의 결과임을 깨닫고 "회심"

그녀는 오랫동안 레즈비언으로 살며 시러큐스대학에서 쿼어 이론과 여성학을 가르쳤다. 그 무렵 1996년 한 지역 신문에 기독교인의 동성애 혐오를 지적하는 사실을 기고했다. 그러다 같은 지역에



▲ 탈동성애 이후, 동성애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전하고 있는 로사리아 버터필드. 출처: 유튜브 채널 Devin Gibson 캡처

살고 있는 켄 스미스(Ken Smith) 목사의 초청으로 시작된 성경통독이 그녀의 일생을 바꿨다.

버터필드는 자신이 읽은 말씀 중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목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맺기를 원하셨고 그분 아들의 희생의 보혈로 이를 이루셨으며, 이 모든 것을 권위 있는 책으로 전달해 주신 것에 깜짝 놀랐다.

켄 목사의 가르침과 청교도 존 오웬(John Owen)의 신학도 그녀의 회심에 기여했다. 켄 목사는 버터필드가 '그녀 자신이 보기에 윤리적인 것이 곧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 즉 '객관적 진리가 아름답고 윤리적인 것을 결정한다.'고 가르쳤다. 존 오웬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죽이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버터필드는 동성애와 무신론이 점차 자신의 주님이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면서 결국 동성애 파트너와 헤어졌다. 그 이후 그녀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기독교 저술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버터필드는 최근 미국의 친동성애적 흐름에 대해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며 인간이 수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적극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

그녀는 "엘지비티 성인 자녀와 관계가 끊어진 크리스천 부모 등 엘지비티 운동의 희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와 입법부에도 진실을 전파하고 공적 영역에서 담대하게 적극 발언하며 그 결과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GPNEWS]



하마스를 진보 세력으로 여기는 반이스라엘 시위대... "학생들의 망상일 뿐"

최근 미국 대학에서 일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잘못된 현실 이해를 기초로 반이스라엘뿐 아니라 반미주의를 추종하는 시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기독교 문화평론가 짐 데니슨 박사는 최근 데니슨포럼을 통해 반이스라엘 시위는 누군가 이들을 몇 달 전부터 훈련을 시켰으며, 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데니슨 박사에 따르면, 뉴욕시 집회에서 한 시위자는 9.11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때 일부 시위자들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무역트레이드 센터 공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조기를 훼손하는 이들의 신념을 어떻게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

트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는 시위대의 신념을 이렇게 요약했다. "하마스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은 '하마스가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백인 정착민(원주민)을 대체하는 유럽 이민자라고 믿는다. 그들은 하마스를 글로벌 자본주의에 맞서 기후변화, 민주주의, 엘지비티큐(LGBTQ) 성 정체성 보유자의 인권과 같은 대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운동의 글로벌 연합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하마스에 대해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견해는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저 학생들의 망상일 뿐이다.

원칙을 따르는 플로리다 대학, 학생 시위 없어

이러한 현실에서 데니슨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1위 공립 대학으로 선정한 앨리트대학인 플로리다 대학은 학교 측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시위대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이 대학의 벤 사세(Ben Sasse) 총장의 학생들의 시위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됐다.

첫째, 대학은 말과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 발언은 폭력이 아니며, 침묵 역시 폭력이 아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이다. 둘째, 대학은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대학은 항상 시위대의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옹호한다. 하지만 명백히 금지된 활동을 위반할 경우 캠퍼스 밖으로 쫓겨나고 정학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학생은 3년 동안 캠퍼스 출입이 금지된다. 셋째, 대학은 진정한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교수진은 학생들을 논쟁과 설득의 세계로 안내해야 한

다. 마음은 강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변한다. 사회나 문화가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성을 중시하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현재 반이스라엘을 주장하는 시위대는 세계를 억압자와 억압당하는 관계에서 바라보며, 자신들은 억압당하는 자들의 편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진리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행동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부합하거나 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유혹을 받을 뿐이다. 대신 주관적인 입장이나 편견을 넘어서 현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이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데니슨 박사는 주장했

다. 플로리다 대학의 입장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또 "국가의 복지는 시민의 도덕에 달려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초점은 시민들이 도덕적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영(엡 5:18)에 복종하고 우리가 더욱 구세주를 닮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롬 8:29),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빌 2:15~16) 수 있다.

미국의 혼란스런 이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따라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GPNEWS]





복음기도신문 3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복음기도신문을 이렇게 사용해 주소서”

복음기도신문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이 벌써 15년이 되어가네요! 복음기도신문과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니, 젊음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영원한 것에 쏟아붓게 하신 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동성애를 비롯하여 넘치는 죄악으로 역사의 끝을 향해 침몰해가는 이 땅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복음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로 살아갈 것을 함께 고백하며, 이 일에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복음기도신문과 모든 순종의 증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날까지 달려가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6행시를 지어봤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소서!’



복음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기도의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교회를 세우소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신부의 손에 들린 철장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문은 좁은 문으로, 길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복음기도신문을
그 날까지 사용하여 주소서!

양동원(본지 고정 필진)

복음기도신문이 교회에 미친 파급력

저는 개척교회 초기,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합당한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결정할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바로 설교는 총체적 복음을 기반으로 전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도는 될 수 있는 한 복음이 필요한 전 영역을 아우르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을 세울 때 ‘기도’라는 한 축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복음기도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기도신문을 활용하여 기도하면서 이 신문의 몇 가지 탁월함이 교회에 선한 영향

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적 관점’입니다. 복음기도신문의 독자라면 모두 알다시피 모든 기사가 복음적 관점에서 집필되고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복음적 세계관에서 판단하도록 돕고, 읽는 것만으로도 바른 식견을 가지도록 안내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문을 통해 기도하면 잘못된 관점으로 기도하다가 되려 주님 마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불상사가 없이 교우들의 식견까지 복음적으로 교정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최적화된 탁월함이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의 지면은 단순히 교계나 선교적 소식을 다루는 것에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세심함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문 기사의 하단에는 ‘기도문’을 첨부하거나 ‘기도합니다’라는 표시 란을 두어서 독자로 하여금 기사를 열람만 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권유하는 배려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배려를 통해 교회는 한 영역이라도 더 기도로 씨름할 마음을 얻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복음기도신문은 열방과 나라, 사회와 삶의 영역을 아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전부를 삼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다가 세상을 기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좋은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은혜와 감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개척교회는 지금껏 5년간, 매 예배마다 복음기도신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도 소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깊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복음만이 우리의 응답임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생명 된 복음, 결론 난 복음으로 기도하고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기도신문은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기도가 되어 무너진 이 땅의 한 칸을 섬기게 되길 기대합니다.

김동진 목사(일산 하나교회, 본지 편집위원)

“돈을 구하던 나를 주님을 구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기도신문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복음기도신문 1호를 받아보았을 때만 해도 제가 300호 발간 축하 메시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본어 번역이 가능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 할 수 있습니다!’하고 손들고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이트의 작은 문제만 생겨도 “집사님~” 하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던 나를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셔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



셨 습 니 다. 일을 주 신 줄 알고 일했는 데, 지나고 보니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돈을 향해, 돈을 구하며, 돈을 사랑해서 일하던 나를 주님을 향해,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게 하였고, 그 일의 결과가 잘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라 연합임을 알게 해 주 셧 습 니 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달리는 동역자들을 주셨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이렇듯 주님이 성실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데 누가 봐도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기도신문의 내일을 생각하면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 니 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금까지 하 신 것처럼 더욱 주님만 기대하며 그렇게 전진하십시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날의 영광을 봅시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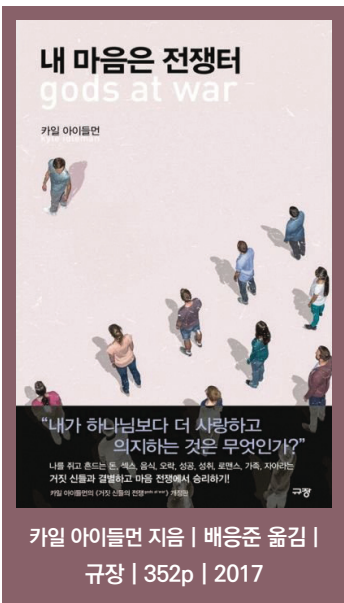
이지수 집사(본지 웹사이트 운영 동역, 일본어 번역)

창간준비호부터 300호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 언론매체들이 있지만 복음기도신문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부르심 앞에서 고민하고 믿음의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복음기도신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위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전략적일까 고민될 때 신문을 보고 함께 읽기도 하며 때때로 교회와 교제하며 다가갈 수 있었던 통로로 나에게겐 전략적 무기였다.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헛갈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줬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전쟁 가운데 있는 대적의 무리들을 고발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참 언론. 복음기도신문.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한줄기 빛을 비추어 주는 등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호 기쁨으로 축하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GPNNEWS]

이상호(야진과보아스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총판)

거룩한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들의 싸움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어떤 신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상숭배라니.

이 책을 읽는 내내 누가 내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렸다. 이런 것들도? 이것까지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치부하며 모른척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아닌 많은 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스며들어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친밀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쉬는 시간도, 맛있는 음식도, 가족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결국 우상이 된다.

나는 피곤할 때 단것을 먹고 싶어 한다. 하루 종일 머리를 많이 썼다고 생각할 때는 의미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피곤할 때, 생각할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했다.

정말 내 육체는 당분과 칼로리가 더 필요했을까? 입안 가득 넘치는 달콤함은 고작 2분 정도 나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2시간은 후회하는 것 같다. 해야 하는 많은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들여다보는 미디어는 시간을 순식간에 잡아먹고 더 복잡한 생각들을 뱉어 놓는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내가 누렸던 잠깐의 휴식은 다음을 위한 재충전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나 잠시 자아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해 주는 시간이었다. 난 이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맞다. 내 피곤한 몸과 분주한 마음, 복잡한 머리가 필요로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나는 다른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승리하여 주도권을 잡았고, 난 습관적으로 그들을 찾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히고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저자는 우리 신자들조차 부지중에 깊이 빠져있는 우상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 우상 숭배를 열렬히 숭배하다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실제 사례들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돈, 성, 음식, 쾌락, 성공, 심지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우상인 '나'의 정체도 밝혀낸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된다.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거짓 신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계, 사역, 휴식, 때로는 꿈과 비전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보좌를 차지한다.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우상들에게 우리의 뒷문을 열어주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

고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삼상 12:24~25)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얻어보고자 하는 허무한 욕구에 사로잡힌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게 이루신 그 승리가 어떤 능력인지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의 깃발을 쫓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더러운 우상들이 탐내어 차지하도록 내어둘 수는 없다. 매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시 결단한다. 그분이 내 안의 모든 전쟁을 잠잠케 하시고 영원하신 왕으로 홀로 예배받으시도록. [GPNEWS]

이귀영 선교사

2024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 모집 대상

- 2024학년 7월 기준, 초등학교 4학년(2014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2009년생) 연령대의 학생. 단, 고등학교 1학년(2008년생)은 중학교 3학년으로 1년 하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2. 입학설명회

-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4년 6월 10일(월)~2024년 6월 22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3.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4년 6월 29일(토)~2024년 7월 20일(토)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4.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2024년 7월 27일(토)
- 2차 'Camp, Go up to Hebron!': 2024년 7월 29일(월)~2024년 8월 2일(금)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됩니다.)
- 2차 합격자 발표: 2024년 8월 3일(토)
- 3차 최종면접: 2024년 8월 5일(월)~2024년 8월 7일(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8월 10일(토)
- 2024년도 입학식: 2024년 8월 27일(화)

5. 문의 및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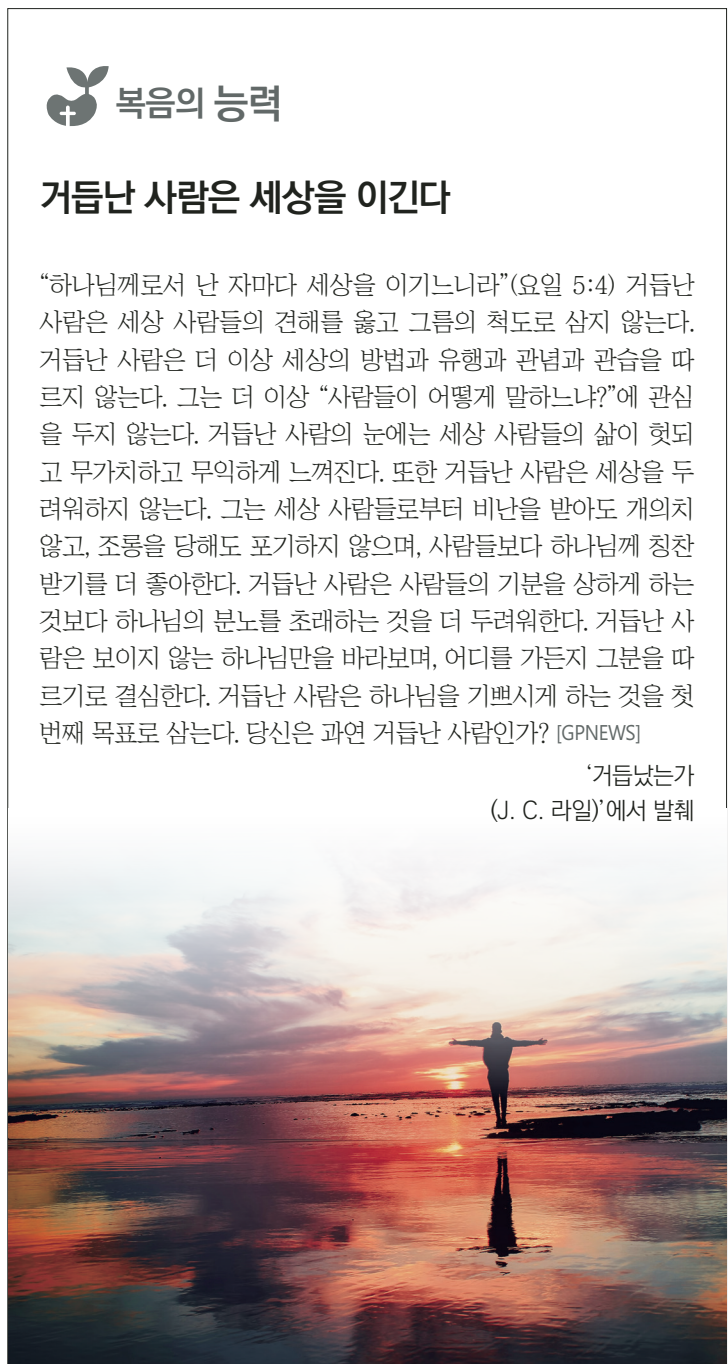
- 입학사무처: 010-4936-4641, 010-7323-4641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세은수양관)

복음의 능력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요일 5:4)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옳고 그름의 척도로 삼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유행과 관념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익하게 느껴진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조롱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더 좋아한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당신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독자편지



임치운 목사(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문이 있어 전도지 걱정 안 해요”

복음기도신문은 저에게 믿음의 도전과 큰 울림을 주었던 첫 전도 매체입니다.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전도 물품들을 접하였지만 복음기도신문처럼 순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를 힘쓰는 매체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의 자리를 감당할 때도 따로 전도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기도신문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수준의 복음을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기도신문은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성경적인 전도 매체였습니다. 신문 안에 담겨 있는 증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제시해주기 때문에 불특정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마다 적절한 대안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기도신문이 전도 매체로 활용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문에 기고된 컬처 칼럼을 참 좋아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다양성이 될 수 있는 건강한 도서 하나 제대로 소개받기 힘든 시대에, 고민 없이 책을 고르게 해주는 매체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포토에세이, 카툰, 복음드라마 등등, 사람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영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과 넓은 은혜를 맛보게 되니 저의 좁은 시야 또한 넓어지는 도움을 벌써 10년째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복음기도신문을 가지고 전도한 지는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복음기도신문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적혀 있는 기사들을 읽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부터 목은 신자에 이르기까지, 귀한 양분을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복음기도신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정민 선교사(순회선교단)

“목표를 정했다. 복음기도신문 매호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떠내려가는 장망성과 같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는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붙들고 살게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옛 사람의 흔적에 집중하며 실패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씩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삶의 여정에 복음기도신문은 해매고 흥미했던 저의 신앙의 삶에 불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습능력이 좋지 않아서 뭔가를 빨리 배우지도 못하는 무능한 자인데, 그런 저에게 복음기도신문은 지식을 얻도록, 배울 수 있도록,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 있는 주제만 골라서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용의 선교사님의 칼럼, 증인들의 삶(인터뷰), 언제부턴가 미술작품을 복음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코너(Views in Art)를 재밌게 봤고, 책 서평(Views in Books) 또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신문을 받자마자 뒤로 넘겨서 맨 뒷부분부터 읽곤 했습니다. 또한 신문 곳곳에 있는 삽화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글을 읽고 이렇게 목상을 하셨구나.’ 하며 그림을 그리신 분들도 주의 깊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함께 달리는 동역자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웃음과 감동과 함께 ‘아멘, 아멘’ 하며 읽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신문 구석진 곳에 자그맣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믿음의 삶에 대해, 기도의 삶에 대해 갈갈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읽게 되면 강력한 내용이 짙막하게 있어서 줄을 긋고 스크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복음기도신문의 기사 내용을 스크랩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스크랩을 하면 정독을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큰 도전이 되는 청년선교는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더 활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도 시작하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복음기도신문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였습니다.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작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에게 큰 지혜와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새 생명의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단연코 복음기도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사 읽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음세대들이 문해력이 부족한데, 복음기도신문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읽고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면 가장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완성을 위한 대연함이 오늘도 실제임을 나타내는 복음기도신문, 감사합니다. 300호가 나오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석 집사(그안에진리교회, 복음기도신문 전도 모임 '광야에서 외치다' 멤버)

“중학생이 5분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함 3:17~18)

요즘에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몸의 상태, 날씨, 가정형편,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이 흥해요, 여기고성 같아서 낙심할 때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에 큰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존재적 죄인인 소망 없는 나를 “너를 반드시 찾고 말거야.”라는 주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주님이 상속자 삼으시며 영원한 사귀기로 매일 나를 초대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나를 광야로 계속 초대해주셨습니다. 계달의 장막의 술람미 여인 같은 불품없는 나를 그냥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며 나를 광야로 초청하시고 교제하자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이 이젠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들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 통하는 마음으로 목이 쉬도록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힘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스도가 전부 된 기쁨, 주님이면 충분한 기쁨에서 옵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 15:5),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바로 포도나무에 연합된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후에 순모임 후 강남역으로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전도피켓을 세팅하는 중 종교생으로 보이는 3명의 남학생들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혹시 예수님 믿나요?” 한 명은 불신자, 한 명은 가톨릭, 한 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1분만 복음전해 주고 싶었는데 괜찮은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친구는 도망가고 두 친구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신자인 친구가 5분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중간중간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들게 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복음을 듣고 영접한 분들에게는 연락처를 받고 복음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형편에 맞게 선별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복음드라마는 짧은 시간에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복음기도신문도 형편에 따라 전도용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몸은 지쳐 있지만 내 입술엔 찬양과 함께 기쁨과 위로가 올라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PNEWS]



- 1 복음기도신문으로 전도하는 어린이
- 2 복음을 전한 청소년과 함께
- 3 복음기도신문을 읽으며 줄을 긋고 스크랩한 사진



복음기도신문을 이렇게 활용하세요

1. 복음기도신문을 구독하세요.

2~3주 간격으로 나오는 종이신문을 읽고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복음이 담겨있는 복음기도신문을 전도지로도 활용하세요.

구독신청 ☎ 070-5014-0406~8



2. '복음기도신문'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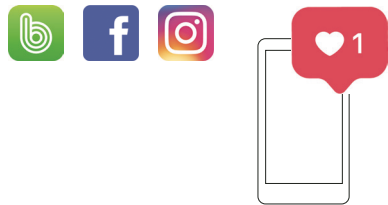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복음기도신문(gpnews.org)'에 접속 열방의 소식을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열방' '오늘의 한반도' 매일 오전, 오후 제공되는 '오늘의 뉴스'를 만나보세요.

기사 맨 아래 "읽고 기도합니다!" 버튼 누르고 "기도해요"



3.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 친구가 되세요.

'복음기도신문'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인스타에 연결하세요. 인스타에서 짧은 뉴스 영상을 만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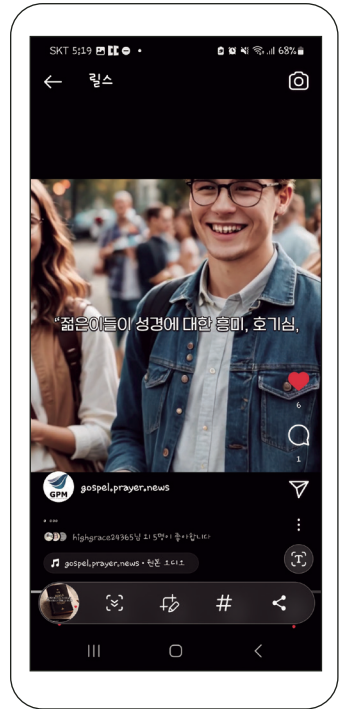


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되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만나보세요. 친구에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GPNEWS]



복음기도신문 기사마다 있는 읽고 기도합니다



인스타그램 복음기도신문 릴스 영상 캡처



복음기도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긴 사진 한 컷... 지앤씨



라오스 새해맞이 배마이 축제

출처: gnsee의 senyya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Gospel 그리고 See. 지앤씨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다.

사람들은 흔히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카메라에 담는다. 아름다운 장면을 남기기 위해 개성 있는 포즈를 취하거나 각도를 조절하면서 최상의

사진을 남긴다. 시간이 흘러 사진첩을 뒤적거리다 발견한 사진 한 장은 당시 그 장소, 그 나이, 그때의 나로 안내한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그 상황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우리 일상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가장 아름다운 순간, 셔터를 아끼지 않고 찍은 사진들을 사진첩에 정리한다. 이들은 시간이

흘러 우리와의 추억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공유하는 사이트 지앤씨(www.gnsee.org)가 지난해 6월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지앤씨에는 열방에서 현지인들의 모습,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 각 나라의 독특한 풍경, 자연, 예배 등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앤씨의 사진들은 지앤씨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이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비영리 목적에 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작가로 활동하기 원하는 분들을 지앤씨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작가 신청을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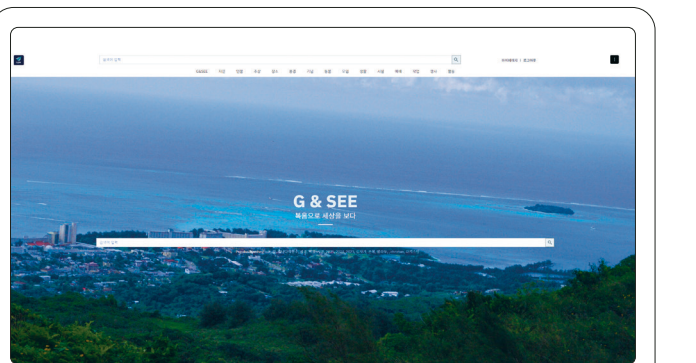
이처럼 지앤씨는 복음기도미디어가 운영하는 사진 공유 사이트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목적으로 사진들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서 개설됐다. 기존에 있는 사진 공유 사이트에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정적인 사진들

을 피해야 하며 사진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이에 지앤씨에서는 단순한 예쁜 사진 수준을 넘어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은 한 장의 사진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은 기도 카드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지난 2023년 9월 8일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1000명이 넘게 사망했다. 당시 모로코 지진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돕던 한 선교사로부터 현장 사진을 전달 받아 짧은 내용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대구와 인천에서 강행된 쿼어 행사 반대 집회 등의 사진도 공유돼 복음기도신문에서 기도 정보로 제공됐다.

지앤씨는 열방이나 국내의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아낼 예수 생명 가진 형제와 자매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문의: gpnews@kakao.com [GPNEWS]



지앤씨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면 충분한 김용의 선교사 (로그미션)



• 1면에 이어

Q. 그동안 신문 발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기도신문이 창간되기 전부터 이러한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신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번 300호 발간을 바라보며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또 복음기도신문을 집회 현장이나 가는 곳마다 소개해 주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00호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조지 물러가 생각났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평생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확인한 기도의 응답만 약 5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만 살아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복음기도신문 300호는 기적의 300이다. 미라클 300.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호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섬기는 미디어 선교사들에게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공식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호마다 기사 작성부터 발행하고 발송하는 이 모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300번의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복음기도신문의 성격이나 내용이 처음 이러한 매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을 때 기대했던 모습과 일치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문 제호가 말해주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복음과 기도를 담아내고, 또 복음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감히 무슨 용기로 누가 할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에 나라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사람들 마음에서 나라가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선각자들이 ‘우리 마음이 죽어서는 안 된다. 독립의 열망을 담은 전단지라도 뿌리자.’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외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터에 복음기도신문이 담아낸 내용은 그냥 만족스러움을 넘어서죠. 아쉬운 부분은 없고 만족하고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끄럼없이 외치고 선포해 감사

Q. 지금 복음기도신문은 종이신문을 2~3주 간격으로, 인터넷 신문은 매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매체를 다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기사를

주목해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두 가지 다 보죠. 어떻게 하나 빠진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양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잘 다루어지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코너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단순한 사람이라서 감동과 도움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거라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Q. 복음기도신문을 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으신지요?

“사람 풍경이라는 코너가 있죠.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웬만한 데서는 듣기도 어렵죠. 이런 건 숨겨진 진짜 얘기인데, 영혼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섭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경보다 좋은 것이 사람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부즈 인 아트를 보면서, 어떻게 그림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나 생각했어요. 새롭게 관점을 열어주되 이런 관점, 저런 전문성, 복잡한 정보 따위가 아니라 그 작품 안에 표현되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들을 진리 안에서 비춰주는 것들이 인상에 남았어요. 특별히 인터넷 신문에는 크리스천 퍼스펙티브가 제시된 기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배경 설명이라든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지, 특히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는 내용들이 참 어려운 작업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기사에 수록된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도움돼

Q. 선교사님은 복음기도신문의 대단한 열독자이시고 또 신문을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복음기도신문을 나눠주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문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한번은 외국에서 복음기도신문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한 분이 복음기도신문을 보면서 ‘이게 뭐야? 우리가 바라던 게 다 있네.’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 진가를 알아준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Q. 초창기에 비해 복음기도신문의 독자층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런 다양한 독자들을 대하며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을까요?

“코너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필요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음세대들이 워낙

에 인쇄물을 접하는 게 쉽지 않아서, 가능하다면 웹툰같이 다음세대가 보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Q.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많은 동역자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당장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저희 기사를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요. 다음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세계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사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원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예요. 문명 세대든, 야만의 시대든, 혼란의 시대든, 평화의 시대였던 상관없이 놀랍게도 한결같은 공통점은 복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의 복음에 대한 태도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세상에 동화될 수 있거든요. 세상과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 혹은 세상이 좀 좋아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그들에게 좀 다가가자.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그건 세상의 속성을 배제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복음의 생명, 본질,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핵심을 빼놓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현대화된 교회론을 얘기하다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꾸게 됐죠. 세속주의가 복음주의 교회에 치명적인 적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이걸 역사 내내 반복된 얘기에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너무 지나치게 짜다고 소금 됴를 포기하거나, 빛에게 너무 강해서 부담된다고 해서 빛 됴를 포기할 수 없죠. 빛이나 소금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시대, 무슨 상황이든 어떤 요구 앞에서든 소금은 소금으로,

빛은 빛으로 존재해요. 달리 말하면 진리의 단순함과 명확함과 강력함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왕따 당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배척하면 어떡해, 무식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이 정도의 확신이 없는 건 복음으로 세상을 향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건 복잡하고 세련되고 화려해질수록 복음의 진리가 더욱 단순하고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예요.

한 일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고 기도원에 가 있을 때 만난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의 누나가 동생을 다짜고짜 데리고 와서는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이 동생을 부탁합니다. 금식 며칠 썰입시다. 우리 동생 불쌍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슨 도사한테 맡기듯이 저에게 동생을 맡기고 갔어요. 동생에게는 ‘이분 말씀은 무슨 말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이분 방에다 불 때드리고 심부름하면서 있어.’ 이렇게 아



▲ 모교 부장선생님 시절(여름성경학교)의 사진.



▲ 강릉에서 찍은 가족사진. 제공: 김용의 선교사

주 이상한 장면으로 부탁을 하고 갔어요. 반항하던 이 친구는 당시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었죠. 기도에 전

념하고 있는 몇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뭐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흉내를 낸다고 밖에 나가서 산기도 하겠다고 몇 번 소리 지르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낙심이 돼서 ‘나는 영 아니구나.’ 하고 그 청년이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나봐요. 마침 그때 기도원지기 하고 제가 같이 기도원에 있는 기도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이름을 부르며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나.’ 생각을 하고 저에게 와서 무릎을 딱 꿇더군요. “정말 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놈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며

단순하고 강력하고 명확한 진리에 대한 확신 있어야

Q.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큰 기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오래전 얘기에요. 제가 마침 특별

“어차피 세상의 속성 자체에 동화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그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무릎을 꿇리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진리에 분명히 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단순하고 강력하고 명확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 걸고 진리 편에 견고하게 서는 증인들의 삶이 필요한 때예요.”



칠 금식 중이었어요. 사실 금식을 하면 모든 관심이 사라지고 귀찮아져요. 그때도 귀찮은 마음에 대충 사영리 소책자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일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무심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쳐다보니 이 친구가 무릎을 꿇은 채로 빨데 안경 사 이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세를 바로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웬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주의 종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때 그 기도원의 청년이라고 하더군요. 누군지 기억이 났어요. 자신이 그때 외국어대 학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외대 캠퍼스에서 2년 동안 울며 울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고, 지금은 대학생선교회 해외선교 담당 책임자가 됐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큰 감동이 있었어요.”

Q. 복음을 만난 이후에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위기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어려웠던 시간이나 또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위기의 인생을 살아서 그 다음에 위기라고 느껴본 적이 잘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걸 위기라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한결같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영적인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위기라고 한다면 그 첫 10년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다가 찾아온 영적인 슬픔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무소유로 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산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쯤 됐을 때 영적인 슬픔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되는 건데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안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적 경쟁심에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즐기면서, 남들보다

는 내가 좀 더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등의 이런 어쭙잖은 자기의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몰랐어요. 다만 분명한 기쁨이 있고 열심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내 속사람이 저절로 주님을 닮아지지 않는다는 괴리가 자꾸 저를 공격을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으로, 청년 회장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싫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외치게 되는데, ‘너 정말 깨끗해? 너 정말 그렇게 완전해?’라는 질문이 나를 향했어요. 명분은 물론 주의 일이라지만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관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영적인 슬픔으로 영혼 안에 묵마름이 가득 찼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더 바랄 건 없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내가 여기 더 있을 게 뭐냐고, 날 천국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울며 철야하고 그랬죠. 그때가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묵마름을 왜 주셨는가 하고 봤더니 저에게 충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총만함에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의 만족한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불러내시는 계기가 됐어요.

복음 전도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평신도였어요. 평생에 제 꿈이 평신도 장로 되는 거였어요. 주의 종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나 같은 천한 소인배가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내실 때, 제 실체가 드러났어요. 정말 죽음 같은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는 그 기간이 바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한 1년 동안 순종을 못했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던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정말 완전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이 실체가 되는 과정을 한 1년 정도 거친 다음에 그 위기가 제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걸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제 생애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의 실체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었어요.”

인생의 위기는 복음의 실체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시간

Q. 네 비슷한 경험과 과정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결핍으로 절망할 기회가 많았어요. 하고 싶고 갖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

금은 너무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가족들이나 지인 가운데에서 진리에 대해 도저히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그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좀 평화로워서 놓고 먹을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필요해요. 흑백을 대조하는 것을 콘트라스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두운 게 얼마나 어두운지를 드러내려면 밝은 것을 옆에서 대조시킬 때 극명하게 드러나죠. 증인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육적인 삶이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총만함과 평안함, 사랑, 세상 계산이 통하지 않는 삶을 보여줄 수 있죠. 또 이 세상에는 항상 악

꼭 필요해요. 핏박을 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불연재를 확인하려면 정말 불을 붙여보는 수밖에 없어요. 강한 것인지 알려면 때려봐야 알 수 있듯이 증인도 고난을 만나봐야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Q. 간혹 집회하실 때 메시지를 하시다가 감동을 찬양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으신데요, 애창곡이 있으신지요. 또 그 애창곡을 갖게 된 배경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도 바뀌고 또 은혜도 달라지다 보니까 때마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애창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이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르고

최고의 흥왕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외형이 잘 될 때는 내면적인 게 소홀히 여겨지기 쉽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 강조점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복음에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선교 완성을 위한 섬김으로 순회 선교단의 처음 비전을 받고 선교를 섬길 때였어요. 헌신의 극단에서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완성을 위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선교완성을 이뤄내자면서 전략 내지는 방법으로 섬기다가 한계에 달컬 부딪혔죠. 우리가 이 명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왜 하나되지 못할까. 해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이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기 일을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최한 꽃대잔치 때 인터뷰 하시는 모습(좌)과 강릉 폐교 교회에서. 제공: 김용의 선교사

과 고통이 있어요. 사람이 평안하다고 해서 절대 평안한 데 머물지 않아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 있죠. 무료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죄든지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평화로운 세계라도 속은 굶아 터져 있고, 그 신음을 자꾸 다른 것, 마약 같은 것으로 잊거나 감각하지 못하게 하죠. 조금만 생각하면 진짜 황폐하고 허무한 세상 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용하셔서 자신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평화가 있지?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런 위로가 있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지?’ 이런 증인의 모습에 자극이 돼서 결국 자기의 영혼의 묵마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예수교회 회복에 이르기까지

Q. 찬송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고, 이후 다시 복음 앞에, 최근에는 교회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도에 강조점을 맞추고 사역을 섬길 때였어요.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도는 스킴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전도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한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자연스럽게 전도에서 시작된 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외형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만나서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도 좋아하죠. 늘 임버릇처럼 말했지만 찬송가 600곡이 전부 내 고백이예요. 한참 꽤 불렀던 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예요. 부르면서 또 혼자 훌쩍거리기도 했어요.”

구하니까 외장창 연함이 깨지고 그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실상에 부딪혔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과연 붙잡고 있는가? 질문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 기도 안하는 선교사가 있어? 당연히 그렇다치고, 복음도 안다 치고, 기도한다 치고, 믿음 있다 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모래 위에도 집을 짓는 꼴이었던 거죠. 사역이 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장창 깨졌어요. 원인이 뭐냐? 전략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잘 못 섬겨서 그런가? 그러나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처음으로 복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보게 됐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먼저 외장창 깨지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진짜 생명의 복음이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부딪히고 이 병든 자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오직 복음만 외치게 됐어요.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관점에서 선교계와 한국교회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GPNEWS]





청년 사역단체 다윗의열쇠,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① 키퍼스처치 크리스마스 예배 ② 고생질 훈련 과정에서 무전여행 중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참가자들 ③ 다윗의열쇠에서 운영하는 ADO 베이커리카페 ④ 가나안입성예배 때 김선교 선교사 ⑤ 가나안입성예배 후 찍은 단체사진 ⑥ 유튜브 채널 다윗의 열쇠 찬양 영상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청년 사역단체 다윗의열쇠(대표 김선교 선교사)가 최근 설립 10주년을 맞아 ‘가나안입성예배’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광야시대에 이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이들을 교회로 세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경기도 남양주 두물로에 위치한 키퍼스처치에서 100여 명의 동역자들을 초대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김선교 선교사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소개했다.

김선교 선교사는 “그동안 정말 무식하게 눈앞에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신만큼 분별하며 걸어왔습니다.”라며 “돌아보니 그 걸음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은혜가 드러날 뿐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중 주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요한계시록 3:7-8)을 붙잡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보니 오히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열쇠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심정으로 공동체를 찾아오는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윗의열쇠는 그렇게 말씀에 순

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관계, 재정적 영역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으로 사람들을 세우고자 했다.

이때 ‘말씀의 실제가 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과 관계와 재정 영역에서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성경통독으로, 기도로,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격 같은 훈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방법이든 순종했다. 그 결과 현재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숙식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이자 훈련단체이자 사역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동생활을 하는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원칙을 세우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것처럼 이들은 고정적인 후원이나 사역의 필요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오직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공급자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쌓이 떨어지고 재정이 바닥나도 사람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주님은 그때 기적 같은 방법으로 공급해주셨다. 어느 날은 “주님, 고등어가 먹고 싶어요. 한 300마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며칠 뒤 마당에 고등어 300마리가 와 있는 경험을 했다.”며 우리의 믿음 같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

“돌아보니 그 걸음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은혜가 드러날 뿐입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격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처럼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순종의 걸음이 교육과정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훈련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3박 4일간 믿음의 원리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경험하는 ‘믿음으로 길을 걷다 수련회’,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학교’, 또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고생질 프로젝트’의 합숙훈련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순종하며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특정 영역에 뛰어든 준비가 생겼으며, 각 분야에 배치돼 준비된 사람들을 도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때까지 돕는 교육단체로 세워진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양성해 그 한 사람의 교회가 사회 모든 분야와 세속화된 영역을 개척하는 일에 뛰어들어 성경적 가치



관으로 개척하고 돌파하고 있다. 현재 사역팀으로는 예배사역, 미디어, 문화 예술 영역의 엔터테인먼트팀, 더키유치원과 같은 다음세대팀, ADO 베이커리카페의 비즈니스팀, 선교사 장단기 파송과 후원 활동을 하는 해외선교팀이 운영되고 있다.

김선교 선교사는 “이들은 단지 사역팀이나 비즈니스 자체를 지향하기 보다 청년들을 세우고 그들의 비전과 꿈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다가도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운영될 것”이라며 이러한 청년들의 순종을 격려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다윗의열쇠는 현재 이러한 사역팀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지키는 교회’라는 의미의 ‘키퍼스처치’를 개척해 전 성도의 사역자화, 전 성도의 선교사회를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GPNEWS]



혼돈의 시대 분열의 시대, 어게인 정오기도회를 기대하며!

1857년 9월 12일, 수십 톤의 금괴를 실은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파나마를 출항, 미국의 당시 교역과 상업 중심지로 주목받던 뉴욕으로 향하던 중 허리케인을 만났다. 6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과 함께 21톤의 금을 싣고 가던 이 배는 이날 강력한 허리케인과 함께 쏟아지는 폭풍우를 견뎌내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당시 76만 달러, 오늘날 4200만 달러(chat gpt 추정치) 어치에 이르는 동전과 금괴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는 당시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184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견된 금광으로 시작된 골드러시의 거품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막을 자금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미국 중서부 관련기업의 파산을 낳았다. 이는 미국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135개의 은행이 파산하며, 실업자도 급증하게 된 이 사건으로 역사는 '1857년의 패닉'으로 이 때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인간적 열심과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주님

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손만 한 구름'을 예비하셨다. 그 주역은 제레마이아 랜피어라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비즈니스맨이었다. 랜피어는 1842년 뉴욕 맨해튼에서 회심한 이후, 당시 북네덜란드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한 상태였다.

랜피어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을 갖게 됐다. 당시 미국은 경제위기뿐 아니라 흑인 노예를 미국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크나큰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던 것. 교회 역시 이 같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해 3월 미국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사건 판결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그 후손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심각한 분열을 촉발시켰다. 미국 교회 역시 노예제 존속과 폐지라는 이슈로 인해 분열 상태를 보였다. 이 문제는 결국 몇 년 뒤 남북전쟁(1861~1865)이라는 극심한 분열을 거친 이후에야 종결되는 듯 했다.

이런 혼란한 미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랜피어는 정오 기도모임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임 홍보를 위해 전단지들을 만들어 배포했다.

"5분, 10분도 좋습니다. 기도의



J. C. Lanphier

▲ 제레마이아 랜피어.

자리로 초대합니다.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디데이는 1857년 9월 23일, 기도모임이 시작될 무렵, 랜피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한 명이 오고, 결국 이날 모임을 마칠 때까지 6명이 참여했다. 다음 주는 20명이 참여하고, 그 다음 주는 40명의 같은 미국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미국은 더 혼란한 상황이 펼쳐졌다. 10월 10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대폭락했다. 미국 경제는 공황 상태로 빠져들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침몰 여파가 낳은 실물경제의 위축이 일반 시민들의 삶까지 송두리채 뒤흔들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성도들이 바라볼 곳

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11월 5일, 뉴욕의 한 신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300~400명이 회심했다는 부흥의 소식을 전했다. 신문들은 북미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소식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해를 넘긴 1858년 1월이 되자 신문들은 이런 부흥의 현장에 기사를 급파해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한 남자는 교제하던 여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뉴욕의 집회장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한 전도자의 간절한 권면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던 그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었다.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1858년 여름이 되자 정오기도회 소식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갔다.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회심과 부흥의 불길기 번지며 19세기 정오기도회의 영적 흐름은 웨일즈, 호주, 인도부흥운동, 그리고 평양대부흥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1~2년이 지속된 정오기도회를 계기로 당시 3000만 명 정도였던 미국 인구의 3% 수준인 100만 명이 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또 수천여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며 열

방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정오기도회 즈음 발생한 미국 사회의 혼란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 사회는 SS 센트럴 아메리카의 침몰 같은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부풀린 거품 경제의 실상이 한계에 이르면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과 정치 이데올로기를 비롯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쟁으로 극심한 분열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영적 타락은 이미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다.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음란한 문화가 전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뒤덮고 있다.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위기의 답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막막할 뿐이다. 그러나 그 위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보인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열망으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꿈꾸던 제레마이아 랜피어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오기도회 같은 부흥을 꿈꾸는 일이 남아 있다. 루터가 고백했듯이 '히어 아이 스탠드(Here I Stand,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응답할 시점이다. 당신이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다. [GNNEWS]

김강호(본지 편집인)

동역단체 | 기도24·365본부

복음기도신문의 기사를 기도정보로 만들어 기도하는 '기도24·365본부'

복음기도신문이 한국과 열방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기도24·365본부(이하 기도본부)는 그 기사를 활용해 기도정보로 만들어 기도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도본부는 열방을 위해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52기도'를 기도정보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는 업무를 '복음기도미디어'와 함께하고 있다. 2004년 12월 출범한 기도본부는 이처럼 2010년 미디어 사역단체로 탄생한 복음기도미디어와 함께 때려야 떨 수 없

는 긴밀한 연합을 이뤄 지금도 열방을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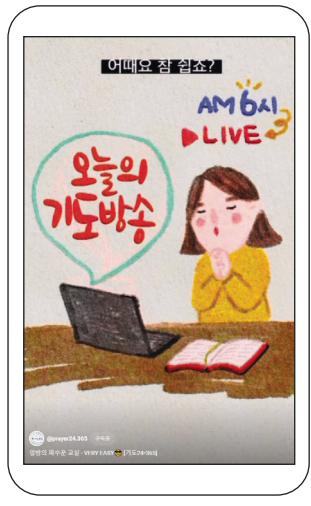
새벽 5, 6시. 기도본부 사역자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24·365기도로 드리며 시작한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급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새벽을 여는 사람도 있다. 약속이나 한 듯 기도로 하루를 여는 본부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기도가 운명이 되어 24·365 기도자들을 섬긴다.

기도본부는 기도정보, 느헤미야 52기도, 기도자 관리로 총 3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중 기도정보를 담당하는 송지선 선교사는 아침 예배가 끝나고 복음기도신문 기사를 살펴보는 일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한다. 기도본부는 아침, 저녁 짧은 기사에 기도문을 붙여 하루 2번 기도정보를 제공하는데, 복음기도신문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열방 기사를 활용한다. 송 선교사는 "일반 신문에는 열방에 대한 소식을 간추려 놓은 게 없다."며 핵심적인 내용을 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좋다고 했다. 또 송 선교사는 "일반 매체는 편향된 관점으로 작성된 기사가 많다. 아무리 객관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도 기자의 세계관이 담길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복음기도신문은 복음의 관점으로 열방을 바라보고 기도할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도본부는 특별히 긴급한 이슈나 사건을 일반 언론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본지에 연락해 기사 작성

을 요청하기도 한다. 송 선교사는 "우리가 복음기도신문에 기사 작성을 요청하는 큰 이유는 관점 때문"이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가 중요하다. 올바른 렌즈로 열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복음기도신문에 기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겐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정보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도본부는 복음기도신문에서 보도된 기사를 골라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정보로 가공한다. 복음기도신문 외에도 일반 언론, 외신 기사를 참조해 기도정보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기도자들이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표현들은 다시 쓰거나 길이가 긴 내용들은 재정리한다. 또 기도자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된 표현들을 한글로 바꾸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어 기사 내용에 맞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작성한다. 하나의 기도정보가 탄생하기



유튜브 채널 기도24·365 쇼츠 영상 캡처

까지의 우아한 백조를 지탱하고 있는 물 속의 분주한 발처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다.

끝으로 기도본부는 300호를 맞은 복음기도신문에 부탁의 말을 남겼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소식들을 듣고 싶다. 미국이나 영국 소식들이 많이 보도되지만, 그 외 보도되지 않는 나라의 소식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기 바란다."며 "복음기도신문만이 할 수 있는 기사도 내주길 바란다. 기사의 양이 많아졌지만 복음기도신문만의 열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제시하는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GNNEWS]



▲ 기도24·365본부 팀. 제공: 기도24·365본부



우리 부부는 흑암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우리 부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흑암에서 건져낸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주님의 강인한 그 손길이 있었다.

철없는 어린 시절, 미국 이민 이후 혼돈의 시간 보내고

윤석기 집사(이하 윤): 나는 1971년도에 태어나서 82년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가는 걸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보는 것도 좋아했다. 학교도 미션스쿨을 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따라 남동생과 함께 1982년도에 괌으로 가게 됐다. 엄마가 많이 그리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말썽을 많이 부렸다. 그러자 1989년 무렵, 아버지는 나를 미국 북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보냈다.

다. 그러다 우리 회사에 하청을 주던 외국 회사에 스카웃되어 갔다. 함께 일하던 몇 분을 데리고 새로운 회사로 가서 일을 했다. 그곳에서 건축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미국의 건축은 망치 들고 벽에 못 박는 일은 3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65%는 서류작업이다. 그때 그런 서류 작업을 배웠다. 그런 서류 작업을 할 수 없는 형님들의 요청으로 동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2003년 겨울에 시작된 4명의 동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한때는 회사도 직원이 70명까지 있고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한눈을 파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돈을 벌다 보니 술과 유희에 빠졌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렸다.

2012년 무렵, 한 동생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던 중 갑자기 이렇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복음학교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알게 된 건 내가 존재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죄가 좋았고, 그래서 죄된 삶을 내가 선택했고,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다.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방탕하게 살던 나를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복음학교에 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도 너는 내 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뭘 잘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인 된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하셨다. 내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비로소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게 인정되는 순간, 진짜 나에게 십자가가 복음이 됐다.

복음 만나 행복한 아내 통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다

윤: 복음학교에 다녀온 아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 궁금했다. 무엇이 아내를 이토록 바꿔 놓았을까. 그렇게 2015년도에 복음학교에 참석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총체적인 복음과 함께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6학년 무렵, 어떤 사람들의 방문으로 얼떨결에 성경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 4년 정도 그들을 통해 성경공부를 했다. 그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했다.

그러나 복음학교를 통해 나는 지옥 푸경을 밟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 곧 죄, 죄 곧 나.' 또 성경은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

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다.

복음학교에 한 번 참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다. 이후 복음학교 섬김으로 계속 참여하면서 진리가 내게 쌓이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복음 앞에서 달리게 하신 게 은혜다. 중간에 한두 번 들고 떨어져 나갔다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학교를 한 후에도 아내와 1년 정도 별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1년 만에 화해하고 아내와 다시 재결합하게 됐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말씀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일단 말씀 보고 기도 하자. 우리 옛 자아로는 안 된다.' 그동안 신앙 훈련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우리 부부의 변화 이후 주위 모든 사람들의 변화 시작돼

복음학교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지체들이 문제가 생길 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집으로 초청한다. 성경책 갖고 와서 함께 말씀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집에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 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북가주에서 동역자들이 함께 모임을 가질 장소가 없던 우리는 집을 구할 때 '주님, 이 집 주시면 주님의 작은 교회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정말 이 집은 주님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머물다 가고 많은 지체들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었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학교에 꾸준히 참석하고 돌이켜 말씀기도를 한다. 또 아내의 열심으로 누헤미야52기도도 한 달에 한 번, 교회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우리 집에서 한다. 또 다시 '이런 존재로 사는구나.' 더 알게 된다.

옛날에는 우리 가족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다. 그런데 지

금 식탁에는 성경책이 있다. 우리 부부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너무 좋아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옛 모습을 다 털어버리시고 말씀 앞에서 서게 하셨다.

우리가 변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은 같은 술을 마시지 않게 된 것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사업 때문에 많이 안 마셔도 한 잔 받아 놓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내의 고백을 통해 술을 끊게 해주셨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보게 하셨다. 끊으라는 신호로 받았다. 진짜 술을 끊으니 술 친구들이 다 떨어져나갔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술을 권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마시겠는데 안타깝게도 주님하고 약속했다. 주님이 보시지 않나.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그 사람 없는 데서 마시면 되는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루는 아는 동생 하나가 찾아와 말했다. "형님 어떻게 교회를 가요? 저도 형님처럼 변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교회나 지각하지 말고 나와라."고 했지만 쉽게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동생의 궁금증은 결국 복음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삶에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일 것이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자, 주님은 내 주위를 변화시키셨다. 동생네 가족, 조카들, 우리 아버지도 많이 바꾸셨다. 고인이 되신 장모님과 아내가 무섭다고 했던 큰 처남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복음학교에 참석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집 거실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말씀이 영어로 써 있다. 그 앞에서 형님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사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셨다. 이 모든 걸 우리의 순종이면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아내와 내가 경험했다.

물론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GPNEWS]

윤석기, 최윤정 집사 부부



▲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모습. 제공: 윤석기 집사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월세를 내면 없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 끝나고 골프장에서 공 줍는 일을 하고 밤 늦게 들어왔다.관에서 알던 동생들 하나둘 찾아오면서 식구는 동생을 포함 모두 8명까지 늘어났다. 먹을 게 떨어지면 동생들과 잠바를 하나씩 입고 마트에 우루루 들어가서 잠바 주머니에 넣어왔다. 죄의식도 없었다. 그저 한 마리 불나방 같은 삶을 살며, 그저 멋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리커스토어 (Liquor Store)라는 구멍가게에서 밤에 일하면서 낮에는 빼빼와 핸드폰을 팔았다. 그러다 20살에 어렵게 대출을 받아 비디오 가게, 이동통신 가게를 했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빚만 잔뜩 떠안게 됐다.

그러다 1996년 3월에 건축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인 건축회사에 들어갔다. 한 달 만에 현장 반장이 됐고, 석 달 만에 현장 총책임자가 됐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됐

말했다. "형,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비록 술은 마시지만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 아냐?"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 교회에서 2014년도에 아내를 만나게 되고 복음학교를 가게 되면서 주님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한 나, 기적같이 복음을 만나다

최윤정 집사(이하 최): 나는 6학년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면서 친척 집을 전전하며 보호자 없이 살았다.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엄마의 빈자리, 무능력한 아버지, 무서운 오빠가 있는 집이 싫었다.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20살에 미국에 계신 어머니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왔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면서 결혼을 한 번 실패했다.

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이 불우한 과정과 나를 지키지 않았던 부모, 무서웠던 오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동역자들과 함께. 제공: 윤석기 집사



“혼란스런 상황에 먼저 엔진 앞에서 모두 어깨동무하고 기도했습니다”



로그스호프호. 제공: 김시은 선교사

청년 선교사들의 생생한 좌충우돌 믿음의 순종기를 담은 [청년 선교]. 기독교인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복음과 운명을 같이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매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으로 안내한다. <편집자>

지난 4월 11일 도착한 남아공 더반(Durban)이라는 도시의 한 항구에서, 드라이독(Dry dock, 배를 육지로 올려 수리, 유지 보수하는 작업)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이 배를 떠나 세계 곳곳으로 아웃리치를 가고, 지금 이곳에 남은 저희는 정말 몸을 불사르며 일하는 중입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되어 오후 5시에 끝나는 일,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8시간을 딱 채워 몸을 쓰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매순간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쑥셔 넣고, 끼이고, 높은 곳에 매달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어찌 되었든 시도해보고, ‘가능하긴 하구나.’ 깨닫는 걸 반복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하고, 해낼 도구와 방법을 찾는 것은 하는 사람 몫이기에 창의력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쯤 오전이 끝나야 되는데... 하고 시간을 보면 여전히 9시도 되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만큼 일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에어컨과 환풍구 작업으로 인해 거의 모든 냉방 시스템이 꺼진 배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만큼 덥고, 엔진실은 50도가 넘는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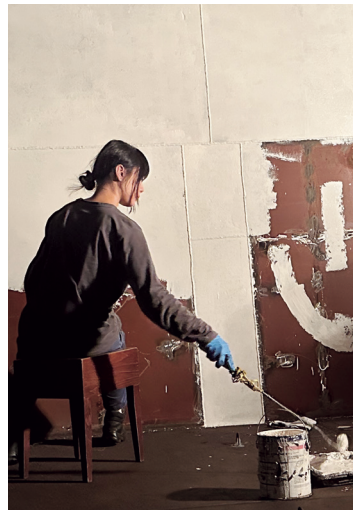
그렇게 일이 끝나면 항상 땀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뒤덮인 몸을 씻고, 새로운 상처와 멍을 발견합니다. 6시쯤 저녁 식사를 한 후 매일 다른 저녁 일정을 갖습니다. 공동체 활동, 여러 이벤트, 기도회, 예배 등. 그렇게 저녁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잠자리로 향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9~10시 사이 반드시 취침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 6일 일하는 그 일정을 정말 고통스럽게 버텨내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는 와중에도 높은 온도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깨곤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글로 정리해 보니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미친 짓이 분명합니다. 그걸 떠나 선교사로 이곳에 있다고 해도 정말 쉽게 지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일하는 동기가 자신의 가족이 되듯,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돈은 벌지 않지만 반드시 다른 어떤 동기가 있기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동기 없이 로그스호프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자처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친구 한 명, 그리고 일할 동기를 잃어 지친 친구 한 명이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상황 하나, 작은 관계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

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데 오늘마저 이렇게 날려 버린다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쉬지 않고 있을 수가 있지? 하필이면 딱 오늘?’이라고 생각함도 잠시, 이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토요일 제 최선의 계획은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최선의 계획은 내 계획과는 다른 것이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편하게 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했던 고백을



▲ 선박 벽면에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좌)과 엔진 부서 동료들과 함께, 배가 흔들려 책들이 다 쏟아진 모습(우). 제공: 김시은 선교사

어. 그분의 허락을 벗어나 내게 올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입으로 했던 이 고백을 제대로 시험하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하프데이(Half Day)’로 오후 12시까지만 일을 하면 되는 날입니다. 바쁜 주 끝에 저는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달 말에 작성하는 이 기도편지를 마무리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스탠바이(24시간 무전기를 가지고 대기 중인 사람)’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되기에 별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오는 무전으로 인해 결국 제 일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마치고 되었습니다. 식사도 여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떤 일을 부탁받을 때마다 ‘또? 설마 또?’ 하면서 반드시 해야 했던 제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

삶으로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루에 담겨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매일 아침 저의 눈을 뜨게 하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기까지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곳에서 영어로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부분이 영어로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네)’라고 불립니다. 참된 소망만이 고단한 삶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로그스호프는 새파란 전쟁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모여 함께 방황하고 예배합니다. 특히 지금 드라이독 중에는 육체적인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분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 합창게임을 일으킬 이유가 되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싸움을 싸우고 계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상황 하나, 작은 관계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엔진 조종실에 앉아 흔들리는 배를 즐기던 중, 조종실 안에 있는 주방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주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떨어지고 박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있을 수도 없이 배가 많이 흔들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설탕, 카레 가루, 접시, 여러 펜들, 의자, 키보드, 마우스, 기타, 책상 등 모든 것이 깨지고 떨어지고 쪼이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요.

배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의 원인이 높은 파도 때문만이 아니라 엔진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말할 것도 없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분들과 전기기사, 몇몇 엔진 부서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엔진 조종실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모여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문제가 있는 엔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작은 행위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로그스호프가 운영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임을, 사역이든 항해든, 결국은 모두 그분의 은혜 아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임을, 그것을 믿고 겸허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임을 감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만 봐도 위험한 것들 뿐이었는데,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있음이 기적 아닐까요? 여러 가능성 계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의 가능성만 생각해도 되는 간단한 인생임에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었던 배는 우리의 연합으로 약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김시은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높은 파도로 배가 흔들리더니 모든 것이 떨어져

드라이독이 시작되기 전, 영국 런던 동부에서 더반까지의 항해 동안 저는 엔진실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해 전 준비해야 모든 과정과 항해할 때 필요한 메인 엔진을 작동시키고 관리하고 정지시키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항로는 평소보다 많이 거칠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즐길 수



선교 통신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복음에 마음을 여는 브라질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 재난 현장을 가다



▲ 가난한 마음의 이재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필자(좌)와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재난 현장(우). 제공: 홍광의 선교사

현재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20여 개 도시가 역대 최악의 홍수로 마비 상태에 있고 6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브라질의 눈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집중 호우로 많은 이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홍광의 선교사(한국 복음가득한교회 파송)가 최근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상황을 전해왔다.

홍 선교사에 따르면, 약 일주일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떠나 할 것이 없게 되어 전부 다 피해 복구엔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민을 향한 기부와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지역 교회에서 수재민 돕기가 진행 중인 이곳에서 어떤 성도는 직접 홍수가 난 곳에 배를 끌고

찾아가 사람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모금을 하고 물품을 사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유독 심각한 인근 지역에는 정말 물도 전기도 먹을 것도 없고 약탈이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도 있다. 아직도 대피소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지역 교회는 며칠 전부터 SNS를 통해 홍보하고 물품을 기부 받아 찾아오는 수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매일 기부 물품을 전달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

지원 활동 초기에는 물품 규모가

적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소식을 듣고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물품을 기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양의 물품들이 모여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

첫날, 물품이 아주 적을 때부터 사람들이 4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매일 시작부터 끝까지 줄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현재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다녀갔고, 이제서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실제로 예배 때 찾아오는 분도 있었다.

교인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한 쪽에서는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자원봉사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전에 이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다.

우버택시에서 만난 사람이나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난 사람들도 교회에 와 다시 복음을 듣는 일도 있었고, 스페인어권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갠신히 몸만 빠져나온 분들도 많다. 또 집을 잃어서 한 친척 집에 40명씩 모여있는 분들도 있다. 수해를 만난 친척을 대신 물품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았다. 현재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고 있다.

수재민 센터 중에는 1만 명 정도를 수용한 곳도 있다. 홍 선교사는 수재민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제안한 성도분과 함께 기부할 물품을 가지고 찾아갔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막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래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하고 계신 여자분께 양해를 구했다. 우리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직접 우리를 안내까지 해주면서 어디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인지 알려주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말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다면서 친절하게 우리를 도왔다.”

홍 선교사 일행은 둘째 날에도 방문했다. 이날은 다른 입구로 들어가, 자원봉사 등록을 먼저 하게 됐다. 그 등록처에도 이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전 한 생일파티에서 홍 선교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던 알리네 사모님 친구 분이였다. 이들은 홍 선교사 일행을 반겨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첫날과 둘째 날 모두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가슴 아픈 상황들이지만 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고 있다.

이때에 기부 물품들이 정말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피해가 빨리 복구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참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GPNEWS]



낙태죄 관련 규정 없어 낙태 양산... 태아보호법 마련 시급하다

매년 전 세계에서 4200만 명의 태아 낙태돼

우리나라에서 낙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인간의 완악함과 이기심을 부추겨 매년 수많은 태아 생명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지난 1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콜로키움에서 ‘태아 생명운동의 새로운 비전, SUFL’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국내의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태아보호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기독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모임에서 장 교수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왕의 이스라엘 사내아기 사살,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 제사, 그리고 헤롯 왕의 사내아기 사살 등 성경에 나타난 어린 생명들이 겪은 수난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매년 4200만 명 이상의 태

아가 낙태되는 현 시대는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완악함과 이기심”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낙태 합법화에 우려하며 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프랑스가 그에 이어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를 추진하는 예를 들며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안락사까지 허용하며 생명 경시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로라이프(생명 존중) 그룹과 프로초이스(낙태 자유) 그룹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은 “2022년 여성의 낙태권리를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진 이후 앨라바마주는 ‘냉동 배아도 인간’이라는 판결로 태아 생명을 중히 여기는 곳도 있지만 여전

히 낙태가 미국의 자유권임을 주장하는 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 우버, 스타벅스 등 대기업들은 직원의 낙태 원정 경비까지 지원하며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기업 중에는 아기를 고객으로 삼는 기저귀 회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2023년 미국 테네시주와 노스다코다주에서 발의된 베이비 올리비아 법안에 대해 “공교육에서 태아가 배속에서 발달하는 3분짜리 동영상 시청하게 한 법안으로서 임신과 생명의 발달을 익히도록 하는 생명존중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인 ‘SUFL(Stand up for Life, 생명을 위해 일어서라)’은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것만이 아닌 성경적 세

100% FREE

제션	내용	기간
제션 1	성산 Stand up for Life의 미션	1주차
제션 2	태아는 생명이에요!	
제션 3	낙태의 실상	
제션 4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및 낙태법 폐지 관련 서안	2주차
제션 5	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배우기	3주차
제션 6	Hmm 그건 말이야- 프로초이스 주장에 대한 프로라이프의 답변	4주차
제션 7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	5주차
제션 8	프로라이프 활동 시작하기	6-7주차

제공: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SUFL에 참여해 활동할 것을 요청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현재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인 ‘SUFL’을 통해 법안 마련과 태아 생명 존중의 의미를 교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SUFL으로 ‘생명의 시작

Mary Rathke (convicted in rape)

I am PRO LIFE

- 장애를 가진 아기는 낙태해도 되나요?
-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 강간/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IIIT
- 여성의 권리? 태아의 생명권? 등등등~

과 출산, 낙태의 실상, 낙태법 관련 현황, 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입양, 프로초이스에 대한 프로라이프의 답변 등 생명운동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그동안 13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 120명을 각 지역의 생명운동단체로 파송, 그 지역의 생명지킴이(Prolife-builder)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GPNEWS]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선포되는 복음



▲ 전도 책자를 받고 기뻐하는 인도 현지인들. 제공: 원정하



얼마 전 남인도 '방갈로르' 시의 한 교민 분이 긴급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인도를 떠나게 되셨다고, 그러니 만화 전도책자를 긴급히 보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땅에 쓰신 글씨(땅글)' 팀의 본진인 인도에서는 한번 프로젝트 때 5만 권에서 10만 권을 배포합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여러 언어 버전들을 동시에, 여러 지역으로 보내지요.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각 파일을 최신화하고,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는 등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턱없이 늦어지곤 합니다. 빠르면 한두 달, 늦으면 반년도 더 기다려야 각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만화 전도책자 박스를 받는 게 인도 내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교민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혈통은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시고, 그 나라에서 인도로 파견된 외교관이셨거든요. 그러니 면책 특권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중심지 방갈로르 한복판에서도 열정적으로 "예수 님만도 뿌리티 수타네(카르나타카 어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외치시며 만화 전도책자를 나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어도, 출국 전에 원하시는 만큼의 만화 전도 책자를 받으시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저희 땅글 팀에서는 긴급 공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갈로르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들께 요청해서 이미 갖고 계

신 만화 전도책자를 교민분께 양보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기독교 출판사 측에도 연락해서, 구형 만화 전도책자(Life of Jesus)라도 좋으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빨리 해당 주소로 보내 주실 수 있는지를 타진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어, 교민 분께서는 인도 출국 전 한 달간 열심히 만화 전도책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뭍바이 - 한국 - 하이드라바드(출판사 소재지) - 방갈로르가 기민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가운데, 다행히 만화 전도책자는 방갈로르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병기 되신 그분은 언제 다시 뵈옵실지 모

르는 땅에서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열정적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인데, 왜 면책특권이 없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다못해 미국 같은 강대국의 시민권이라도 있으면, 비자 발급이나 전도 적발 시의 불이익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제 아내의 이러한 선교를 하고 싶어서, 외교관이 되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는 다만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외국에서 옥에 갇혔던 선교사가 온갖 외교 채널을 통해 풀려나고, 그 선교사를 맞이하려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선교하다 불이익을 당하면 국민에게 욕을 먹고, 같은 크리스천에게도,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에게까지 비판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더 지체롭게 하지 않았냐고, 왜 다른 선교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냐고... 그러나 이번 방갈로르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진 사진과 소식들, 짧은 기적의 장면들은,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나누어질 복음의 소

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땅글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소중하게 간직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현지인들의 손을 통해,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기도 합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저희는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것처럼, 조국과 동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갈로르의 기적을 저희 삶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더 오랜 시간 몰래 동역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분들이 안타깝게 떠나시지만, 저희는 더욱 힘을 내어 인도 땅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GPNEWS] 원정하 선교사



▲ 전도 책자를 받고 기뻐하는 인도 현지인들. 제공: 원정하



동역자의 거짓말... 그러나, 천국 소망이 삶의 이유 되다

계속된 건기로 온 천지가 먼지로 뒤덮힌 K지역을 오토바이로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비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 가득한 먼지를 쓸어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고, 이 거대한 혼돈과 무질서의 땅을 변화시킬 분도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K지역의 사람들은 이 건기의 막바지에 비를 내려 달라고 헛된 신

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 출근길에 거대한 수레 위에 지어지고 있는 신의 처소를 마주치게 됩니다. K지역의 원주민이었던 네와리 족들은 수천 년 전부터 건기의 끝 무렵 비를 내려달라고 '머친드라나트'라는 이름의 힌두신에게 기우제를 드려왔습니다. 그 절정은 거대한 수레를 만들어 신상을 엮은 뒤 약 한 달 동안 시내에 끌고 다니며 제사를 지내는 것

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하늘의 기운을 보아서 해가 짙은 날은 수레를 끌지 않다가,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을 점찍어 수레를 끄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바로 그 신이 비를 내려주었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 무슨 열토당도 않은 해괴한 소란 말입니까. 주님께 이 땅을 의탁드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얼마 전 조금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우리 학원에 스텝으로 일하던 자매가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외국 단체에서 주관하는 간호사 특별훈련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해외로 취업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매는 2년 전 우리 교회 근처로 사촌오빠(?)와 이사 오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매였습니다. N국에서는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호주의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 자매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 예비까지 따로 챙겨주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매는 시골 마을에서 눈이 맞은 형제(사촌오빠라고 속였던)와 도시로 도망을 나와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 배가 불러오자 출산을 위해 한 달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매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는 대신 자기 동생이 일하게 해 달라고 해서 동생에게 일을 시켰는데 언니 대신 온 동생은 학원의 금고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방법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징계의 기간을 갖게 하고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이 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과 마감 기도를 하는데, 로비에서 '해보

다 더 밝은 저 천국' 반주가 들려왔습니다. 오가는 모두가 들도록 늘 학원 입구에 찬송가 피아노 반주 음악을 켜 놓는데 마침 그 곡조가 들려 온 것입니다. 찬송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 이 천국 소망이 아니라면 과연 이 세상엔 무슨 소망이 있을까? 진정 이 소망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무리 상황이 쉽지 않아도 찬송한 구절이 선사해 주는 믿음의 힘!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이 모든 일의 동기이며 결론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뒤로한 채 다시 일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GPNEWS] N국= 요한, 빌립바(본지 통신원)



▲ N국 전경. 제공: 필자



진리전쟁에 참여할 미디어 전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10년 10월 3일, 4면짜리 창간 예비호 4호 신문 제작 과정을 거쳐 드디어 타블로이드판 8면짜리 격주마다 발행되는 복음기도신문 창간호가 태어났다.

“복음기도신문은 겉보기에 초라합니다. 제작에 참여하는 섬김이 수가 한 손의 손가락 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면도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 보입니다. 변변한 배달망 하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 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열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악한 자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아무 소망이 없는 조선 백성들에게 해방의 꿈을 안겨주며 손에 손에 쥐어줬던 ‘독립’의 꿈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신문들이 존재했습니다. 것처럼 복음기도신문은 이미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음을 믿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몸된 성전의 회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창간사를 통해 당시 본지 편집인이 전한 복음기도신문의 나아갈 방향이었다. 본지는 겉보기에 초라하고 섬김이 수도 적고 지면 수 적은 것도 여전하지만, 또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창간 당시 3만 부 발행부수에 따라 독자 발굴

복음기도신문 창간호는 3만 부가 발행됐다. 신문을 받아볼 사람이 3만 명이었나? 전혀 아니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거대한 윤전기로 한번 찍어낼 수 있는 최소 수량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인쇄를 하게 됐다. 믿음으로 3만 부 인쇄가 결정됐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보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우리는 이들을 ‘보발꾼’이라 명명했다. 보발꾼은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사신이다. 즉, 복음기도신문의 보발꾼은 우리의 왕되신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고 복음이 담긴 복



음기도신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복음기도신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봉투나 박스에 신문을 포장해야 한다. 3만 부의 신문 포장작업은 초기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당시 인천 항동에 위치한 요셉의 창고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던 공동체 지체들 수십여 명이 발송작업에 참여했다. 지금은 서산에 위치한 센터에서 헤브론원형학교와 공동체로 지내고 있다. 함께 하는 수십여 명의 교육선교사들이 포장 작업에 참여해 지금은 1시간여 만에 포장 작업을 마치고 있다. 그동안 매년 수명에서 수십 명이 참여한 발송작업에 동참한 사람만 해도 지난 15년 동안 연인원은 1만 명은 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끄셨다.

복음기도신문은 구독료가 없다. 현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셔야만 신문을 인쇄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래도 재정이 없어 신문 발행이 멈춘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신문 포장 박스를 센터 주변 마트에서 구해오며 마트 직원과 스킬 넘치는 솜바꼭질을 해야 했던 행복한 기억도 있다. 현재는 포장 봉투와 박스를 주문해서 사용할 만큼 많이 세련됐다.

2014년, 복음기도신문이 위기 아닌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복음기도미디어는 순회선교단에서 파견된 선교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일정 기간 파견이 끝나고 돌아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파견돼 오는 선교사도 있다. 2014년 8월, 순회선교단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음기도미디어에 있던 선교사 모두가 복귀하고오직 한 명의 선교사가 새로 파견됐다.

위기는 기회... 미디어 선교사를 모집하다

조직개편 날, 본지 대표는 임지를 옮겨 합류하게 된 선교사에게 물



었다. “컴퓨터는 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컴맹인데요.” 며칠 후 사역 인수인계 시간이 지나고 대 표는 조용히 금식 기도원을 찾았다. “주님, 이제 사역을 그만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역에 대한 마음을 거의 내려놓을 즈음, 이 상황을 알게 된 순회선교단 측이 급히 조직개편을 다시 하고 편집 능력이 있는 사역자 두 명을 파견했다. 하마터면 복음기도신문이 4년 만에 폐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신문이 바로 97호다. 참고로 컴맹이었던 사역자는 순회선교단에서 파송을 받아 전임 사역자로 지금까지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 그 이후 이 단체에 헌신한 ‘미디어 선교사’들이 탄생했다. 이들은 지금 미디어 영역 한 복판에서 기도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 열방의 소식들을 전달하는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

격주간 종이로 발행되던 복음기도신문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웹페이지를 통해 매일 기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매일 열방의 소식을 짧게 요약해 제공하는 ‘오늘의 열방’ 코너가 시작됐다. 이것은 기도자들에게도 손쉽게 활용되는 유용한 기도정보가 됐다. 오늘의 열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달해오다 어느 날 하루, 분주한 일정으로 기사 작성을 쉬었다. 그랬더니 해외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은 ‘오늘의 열방’이 안 오나요? 저는 매일 SNS로 50명에게 ‘오늘의 열방’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이후 본지는 주일과 명절을 제외하고 매일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도를 쉬게 할 수는 없기에, 매일 기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이후, 많은 콘텐츠가 쌓이고 사이트 방문자도 증가하면서 웹사이트가 여러 번 개편됐다. 웹사이트 개발자를 놓고 기도하던 중, 본지 일본어 신문을 번역하던 한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리뉴얼을 섬겨주겠다고 했다. 몇 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자신이 계속 볼 수 없겠다며, 이후 본지가 운영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사이트 모두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최근엔 ‘카르멜’이라는 웹 개발 회사를 창업하고 기독교적 마인드 기업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 신문을 제작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오타’. 하나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오타는 신문의 꽃처럼 제작자들의 추억을 장식한다. 그중 큰 오타 사건이 둘 있다. 복음기도신문 종이신문은 26호가 없다. 26호를 제작할 때, 신문 오른 쪽 상단에 있는 신문의 호수를 미처 변경하지 못하고 지난 호수인 25호로 그대로 인쇄된 것. 그렇게 26호는 제작진들의 마음의 눈에만 남겨져 있다. 또 한번의 오타는 198호에 있다. 인터뷰 맨 끝에 붙이는 안내 문구를 통째로 빠트린 것이다. 신문 포장 작업 하는 날 새벽에 인쇄된 신문을 받아들고 ‘아뽀싸!’. 결국 빠진 문구를 스티커에 인쇄해 수만 부 신문 한 장 한 장에 스티커를 붙였다. 하루 종일 걸린 포장 작업을 기쁘게 도와준 지체들의 은혜가 남은 호수였다.

2010년 2월, 미디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과기도미디어. 열왕기하 2장 21절과 잠언 4장 8절, 요한복음 4장 38절을 약속으로 받았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뿌리듯 미디어 영역에 복음과 기도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매체로 인도해 오셨다.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을 글과 영상에 담아 전달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약속의 말씀이 이뤄지는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14년을 걸어왔다. 인류는 지금 진리 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이 식어가고 하나님이 세운 진리가 무너지고, 이에 도전하는 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라기는 이때이 같은 진리전쟁에 참여할 많은 미디어 전사들이 일어나,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한다.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지난 시간 동안 그런 수많은 영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왔던 것처럼, 남은 시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용사들의 ‘노크’를 기다린다. [GPNEWS] 복음기도신문 섬김이 일동



1 복음기도신문 창간호 2 초창기 '복음기도신문' 발송 작업 현장 3 윤전기를 돌아 인쇄된 복음기도신문을 꺼내고 있다. 4 인터뷰에 빠진 문구를 스티커로 붙인 복음기도신문198호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4. 25 ~ 5. 15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선례 김신애 김애심 김혜신 박경희 박신희 방민선 송근우 신혜경 안민자 안석문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이동영 이보희 이상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준홍 이진희 이향은 정요한 정호진 조형광 최근희 최영석 최점옥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병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나죽고예수시는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팀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샘물교회춘천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에그교회
오직예수 주나임교회 주소광교회
참종았더라교회 험스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